

금남로에서



장필수
예향40주년기념위원장

대자보는 1980년대 대학가 학생운동을 상징하는 벽보다. 백지에 매직으로 쓴 굵직한 시국 현안문은 대학가 여론을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민선 8기 광주시 장기정호가 교통 정책으로 '대자보 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 시절 전남대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강 시장 다은 발상이다. 여기서 대자보란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의 약자로 광주시의 교통 정책을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방향 맞는 교통 및 청년 정책

슬로건의 성공 열쇠는 구호의 선명성에 있다는 점에서 대자보 도시 광주는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필프에서 드라이버 샷은 거리가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말처럼 대자보 도시 광주는 방향성에서도 맞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대자보 도시 광주의 열거를 보면 도심 전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촘촘하게 연결하고 자전거 생활권 구축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 공간 재편을 위한 인프라를 까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 할인정책인 '광주 G-패스'를 도

대·자·보 도시, 광주의 미래는...

입해 정책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준공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는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자동차 중심 도시다.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면 30분이면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 자가용이 있으면 그만큼 편하지만 정시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대중교통 체제에서 교통 약자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자보 도시 광주가 단순히 교통 정책이 아니라 청년 정책이라는 얘기가.

얼마전 광주시의회가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대자보 도시 광주가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대자보 도시 정책 찬반을 묻는 질문에 56.9%가 찬성을 했지만 절반이 넘는 56.6%는 '잘 모른다'고 답해 방향은 맞지만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광주시의 교통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나 만큼 시민들의 수용성이 성공의 바로미터다. 당장 차도 폭을 좁혀 자전거와 보행 도로 폭을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가 시작될 텐데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운전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홍보를 통한 대자보 도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고 경제적이려면 굳이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자가용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시민 의식 전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름아름 작전'으로 정책 전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자보 도시 광주의 성공 시험대는 광주시가 실증 모델 1호로 지정된 광천권역 교통 대책이 될 것이다. 광천권역은 더현대와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고 재개발까지 겹친 광주의 최대 교통 혼잡 지역이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하루 14만 대의 교통량이 29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는 이곳에 도시철도 3호선 개념인 광천상부선과 도로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를 동시에 도입하고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 전체를 일시에 대자보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터라 광천권역을 시범 모델로 삼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 점차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그런데 광주시의회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 64.4%는 복합쇼핑몰이 생길 경우 자가용을 타고 소풍할 것으로 조사돼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성공 조건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의 교통 정책이 이번처럼 획기적인 적이 없었다. 대자보 도시는 비단 광주만이 꿈꾸는 것이 아닐 정도로 모든 도시의 로망과도 같은 정책이다. 성공한 일부 선진국에서도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과 시민들의 고통 감수가 따랐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착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전제 된다면 좋겠지만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도 결국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기획 의도도 중요하지만 성공시켜야 하는 책무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의도는 좋았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실패한 정책이란 냉정한 평가를 감수해야 한다.

민선 8기 광주시의 대자보 도시는 어떤 결과로 귀결될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일도 없다. 쉽지 않은 항해를 시작한 장기정호에 응원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다. 성과를 이뤄낸다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선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은펜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연구소 대표

어쩌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술자리에 참여해 보면 몇 가지 사실이 놀란다. 그중 하나가 술자리 게임이다. 어쩌나 활기차고 창의적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손뼉을 따라가기 어렵고,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민폐가 될 수 있어 빨리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좋다. 요즘 세대는 술 문화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의 술 게임 문화는 세계적으로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창의적인 면에서 그렇다. 서로 융합하며 다양하게 발전한다. '아파트 게임'처럼 간단한 규칙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눈치게임'에서 '파이팅 게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하고, '나성에 서 달려온 얼룩말'처럼 새로운 테마와 아이디어를 도

로제의 '아파트'와 한국의 술 게임 문화

입하여 진화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적 요소의 융합으로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창의적인 술 게임이 음악과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까?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놀이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다니 정말 놀라운 성과이다. 로제조차도 이 곡을 발표하기 전에는 너무 가볍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 중독성 강한 매력 덕에 진행했다고 한다. 발매 직후 글로벌 음원 사이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각종 챌린지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실 한국의 술 문화를 주제로 한 음악적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후, 그는 힙합 아티스트 스눕 독과 함께 '행오버(Hang Over)'라는 곡을 발표했다. 한국의 음주 문화를 소개하려는 의도였지만, 기대만큼의 반향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번엔 로제의 '아파트'는 그 속제를 해결한 셈이다.

브루노 마스와와의 협업이 글로벌 히트를 한 이유로 거론되기도 한다. 브루노 마스는 그래미 어워드와 아메

리칸 뮤직 어워드 등 다수의 음악상을 수상한 글로벌 스타이지만, 협업 자체가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2020년 일본의 인기 보이그룹 아라시가 브루노 마스와와 협업해 곡을 발표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의 술 게임은 역사적인 깊이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신라 시대의 '주령구'는 14면체 주사위를 굴러 다양한 벌칙을 수행하며 술자리의 흥을 돋우었다. 예를 들면, 소리 없이 춤추기, 여러 사람의 코를 두드리기, 술을 마시고 크게 웃기 등과 같은 벌칙들이 있었다. 한국의 독특한 술 문화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CNN에서 발표한 '한국인이 잘하는 것 10가지' 중 하나로 '회식 문화(business drinking)'를 꼽았으니 말이다.

결국, 한국의 독특한 술 게임 문화가 있었기에 로제라는 아티스트가 아파트 게임과 노래를 결합할 수 있었고, 여기에 브루노 마스와와의 협업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히트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아파트'와 같은 창의적인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술 게임 문화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또 하나의 한류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기고

흘러간 로맨스



황옥주
수필가

"씩이 낫으나 꽃이 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꽃이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 눈이 자한 편에 나온다. 글자대로라면 자연현상의 해석일 수도 있고, 한 겹을 뒤집고 보면 사랑의 풀이일 수도 있다. 숨은 뜻은 학문 얘기가. 이루기 어려운 것이 학문이니 순간을 아껴 매진해야 한다는 뜻이란다.

뒤편 간에 처음이 좋다고 반드시 끝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만정도화가 느닷없는 하룻밤 광풍에 떨어질 줄을 누가 예측하라! 여름날에도 우박이 내린다. 사랑의 일도 녹비홍수(綠肥紅瘦)다. 초록시절에 살았던 이파리도 붉고 아쉬워 떨어진다.

조양숙 씨의 눈어 해설 속에 '말보로(Marlboro)' 담배 얘기가 있다. 어느 대학, 지금의 MIT공대의 가난한 고학생이 지방 유지의 딸과 사랑에 빠진다. 여자 집안에선 둘 사이를 반대하며 딸을 멀리 있는 친척 집으로 보내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던 남자

는 어렵사리 여자를 찾아내어 두 사람은 집 앞에서 뜨겁게 포옹한다. 얼마동안 시간이 지난 뒤 "나 내일 결혼해"하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하늘이 부서져 내림을 느낀다. 비통에 빠져 남자, 눈앞이 캄캄하다. 만나서 하고 싶었던 사연 실은 말들이 순간에 증발해버린다.

"내가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만 내 곁에 있어줄래?" 같이 있을 시간이 끝났음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겨우 꺼낸 말이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다. 당시에는 타들어가는 시간은 길지 않은 권련의 시절이다. 담배연기가 허공으로 흩날리고 둘은 너무 값싸게 헤어진다.

그날 이후 남자는 친구와 동업으로 담배를 만든다. 거기다 담배가 타들어가던 순간이 아쉬움을 겪었던지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몰두한다. 이내 끝에 세계최초로 필터달린 담배를 만들어 백만장자가 된다.

세월은 누구의 바람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세와 월이 바뀌는 사이 남편과 사별하고 병든 몸으로 빈민가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는 여자의 소식을 우연히 듣는다. 흰 눈이 탐스럽게 내리던 날 남자는 흰색 벤츠를 타고 옛 연인을 찾아가는다.

한 여자에게 진실로 정을 주었던 사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나와 결혼해 주겠어?"하며 청혼한다. 방해자도 없고 이별의 주원인이었던 돈도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망설이던 여자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담

을 미루고 다음날을 약속한다. 들뜬 마음으로 날을 지낸 남자가 다음날 일찍 찾았을 때는 목을 맨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인의 주검만 있었다. 녹이지 못해 쌓인 한이 얼만데 가느다란 소망마저 햇볕으로 사라진다.

찾아본 바 없어 말보로의 처음 이름은 알지 못한다.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는 뜻의 담배는 이별 뒤의 아픔을 참으며 만든 것이다.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가 'Marlboro'다. 이 담배를 처음 보았을 때는 만든 사람의 이름인줄 알았다. 여자의 자살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회였을까 옛날로 돌아감을 집어 될 것으로 보았을까? 배신이 자신의 탓만은 아니었을 것, 지난 일은 지난 일,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면 된다.

총장로 1가 진내과 병원 앞 1미터도 안 된 좁은 골목길은 젊은 남녀 애연가들의 집합소다. 십년 넘게 본 것이지만 그대로 담배공초 천지다. 그 속에 말보로 연기도 있을 터이다.

가게에 늘어놓은 담배를 보면서 생각한다.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꽃을... 여인의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릴 적이면 나의 일도 아닌데 마음이 우울해진다.

"씩이 낫으나 꽃이 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꽃이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 공자는 세속사도다 예측하신 모양이다.

社說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성찰과 뼈까는 혁신을

광주비엔날레 창립 30주년인 올해, 제 15회 비엔날레의 폐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축제와 축하 분위기보다는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눈여겨 '위정판'에는 30세를 이립(而立)이라 하여 마음과 뜻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른살의 광주비엔날레는 조직도 위상도 확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듯하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 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한편 광주의 문화예술 전동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국제사회 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창설된 아시아 최초 비엔날레이다.

그때만 해도 지역민들이 회화가 아닌 설치 미술이 주류인 비엔날레 작품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지역 예술축제를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에는 대다수 지역민

들이 서로를 독려하며 관람을 하는 분위기였다. 이로 인해 1회 관람객은 무려 200만명에 달했다.

광주비엔날레는 2014년 세계적 권위의 인터넷 미술매체 아트넷(Artnet)이 선정한 '세계 20대 비엔날레'에서 베네치아 등과 함께 세계 5대 비엔날레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이 한때 현대미술의 대표 문화축제로 주목받았던 광주비엔날레는 국제 미술계의 면모를 찾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 최초,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에 안주하면서 전시와 행사 자체가 확장성과 특성을 갖추지 못해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전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광주비엔날레만의 임팩트 있는 전시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에 변화를 줘야 하며, 콘텐츠 변화를 위해서는 비엔날레재단을 이끌고 있는 수장의 전문성과 혁신적인 조직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

선거사범 신속 재판해도 방어권 문제 없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재판을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그제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삼스레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정기한 준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더불어민주당 안도결 국회의원(광주 동남) 관련 두번째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선거 재판 법정시한인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내년 1월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변호인단이 재판 부실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6·3·3 원칙'은 선거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 규정'을 말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시간을 끌어 임기를 마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인데 실제 재판에

선 '훈시 규정'으로 인식해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광주지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범법행정처의 권고와 내년 2월로 예정된 재판부 인사를 감안해 집중심리를 결정했다. 다만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둘째·셋째 주에 3일씩 열기로 했던 재판을 2일로 줄인 절충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집중심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어 부실 재판이 될 것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콤팩트한 재판 진행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충분한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을 통해 소명을 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도 선거 재판에 법정기한을 둔 이유가 신속한 재판으로 유권자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無等鼓

야생 곰과 달리 사육곰은 웅담(곰 쓸개)를 건조시켜 만든 약재)을 비롯해 신체 부위를 이용하기 위해 키우는 곰을 말한다. 이들은 동물원의 관람용 곰이나 정부가 복원에 힘쓰고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과는 그 처치와 운명이 사뭇 다르다.

철창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참혹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동물애호가들을 애타게 하는 녀석이 사육곰인데, 지난 시절 농가 수익을 위해 사육을 권장했다가 지금은 처리 자체가 골칫거리가 된 '슬픈 역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곰 사육과 웅담 거래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육 종식에 따른 보상과 처분의 문제를 두고 정부와 농가, 동물 보호단체 등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논란의 접점에서 나온 대안이 '생츄어리'(Sanctuary)다. 생츄어리는 '성역', '피난처'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동물

사육곰 생츄어리

반달가슴곰이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등에서 들여든 다른 야생이라는 이유에서 복원은커녕 철창에 갇혀 도축되는 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애처로운 존재다.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곰 농장에 280여 마리(올해 2분기 기준)의 반달가슴곰이 사육되고 있다고 한다. 복원사업으로 지리산에 사는 야생 반달가슴곰이 확인한 것만 89마리인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또 한번 갈림길에 있다. 2022년 민관합동으로 40여 년에

보호시설을 가리킨다. 우리에겐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선 곰 생츄어리, 해고래 생츄어리 등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츄어리가 여럿 있다.

구례 마산면 황천리 지리산 산록에 반달가슴곰 50여 마리를 수용할 생츄어리가 오는 12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서 사육하고 있는 곰 중 150여 마리를 이곳과 추후 조성하는 서천 생츄어리에 수용하고, 나머지는 미국 등 해외로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생츄어리는 인간이 사육곰에게 해주어야 할 마땅한 조치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 여론체부 220-0661 | 사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제2사회부 220-0680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